

# 주부들의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 미 실<sup>†</sup>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과

## The Effects of Van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Clothing Behavior

Misil Chung<sup>†</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yeongju-Campus)  
접수일(2010년 12월 24일), 수정일(2011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2011년 2월 15일)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van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n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8 housewives in Suwon and Seoul, and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reliability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ree factors of vanity were identified (concern for physical appearance, concern for achievement, and positive view of physical appearance/achievement). Based on these three factors,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2) Three fa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identified (relationship with husband, satisfactory life, and unsatisfactory life). Based on these three factors, the respondents were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vanity clusters. 4) There was on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x appeal of clothing according to the marital satisfaction clusters. In conclusion, vanity was an important variable to influence fashion, exhibitionism, body improvement, and sex appeal of clothing behavior. The marital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ed exhibitionism and body improvement for clothing behavior.

**Key words:** Vanity, Marital satisfaction, Clothing behavior; 허영심, 결혼만족도, 의복행동

## I. 서 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으로 외모 지상주의와 성공 지향주의를 들 수 있다. 아름다운 신체는 개인적인 만족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성공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여성은 물론 남성이나 주부들도 외모 가꾸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심화된 경쟁사회 체제하에서 맞벌이 부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혼을 한 주부들도 의

모나 성취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일반 부부들의 결혼생활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다(정현숙, 2001). 또한 결혼만족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자극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 선호의 정도는 만족에서 불만족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안현정, 2003).

의복은 제2의 피부 또는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라고 할 만큼 착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시효과가 큰 상징물이므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착용자의 내면적 특성들은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ms@mail.dongguk.ac.kr

본 논문은 2009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선호, 착용습관 등을 의미하는 의복행동에 반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신체적 외모, 성취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허영심 및 가부장중심적 사회적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는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허영심과 결혼만족도는 주관적, 내면적인 감정이 반영된 개인적 차원의 특성들로서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들로 사료된다. 그러나 의류학 분야에서 허영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조사대상자도 대부분 대학생들이고, 결혼만족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주부로 선정하여,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와 의복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착용자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의복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므로 부가적 관심변인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조사하고 이 요인들에 의한 응답자의 세분화를 실시하며,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응답자를 세분화한다. 셋째,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에 의하여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부가적 관심으로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허영심

Netemeyer et al.(1995)은 허영심(vanity)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 및 개인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집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외모 허영심과 성취 허영심으로 구분하였다. 허영심은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측면과 성취와 관련된 측면으로서, 자신의 외모나 성취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하는 차원과 자신의 외모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외모 허영심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a concern for physical appearance)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관점(a positive view of physical appearance)으로, 성취

허영심은 성취에 대한 관심(a concern for achievement)과 자신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관점(a positive view of achieve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경숙, 박혜정(2006)에 의하면 허영심의 4가지 요인을 근거로 소비자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성취 및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큰 자신감 집단, 다른 요인에 비해 성취 관심이 매우 큰 성취 관심 집단, 성취 및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부족한 무관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서정희(2008)에 의하면 여학생 소비자의 허영심에 대한 군집분석은 허영심의 4개 차원 모두 음의 값을 보인 허영성향이 약한 집단, 허영심의 4개 차원 모두 양의 값을 보인 허영성향이 강한 집단, 외모와 성취의 평가 차원은 양의 값을 보이고 외모와 성취에 대한 관심은 음의 값을 보인 평가 중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남미우(2010)의 연구에서는 허영심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외모나 성취 관심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지만 성취와 외모 자신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외모/성취 자신감 집단, 허영심의 4가지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적극적 허영 집단, 외모나 성취 자신감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지만 성취와 외모 관심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인 외모/성취 관심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여자 대학생의 허영성향을 분석한 서정희(2004)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성취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미우(2010)의 허영 연구에서는 성취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정희(2008)는 과소비경향은 허영심의 차원 중에서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남미우(2010)는 개인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하여 물질의 소유를 통하여 과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전경숙, 박혜정(2006)에 의하면 외모에 대한 관심은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패션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강화시키고 특히 의복을 중시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공에 대하여 집착하는 사람들은 의복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성취를 타인에게 과시하려 하고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최신 유행의 의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영심과 관

련된 의복행동변인으로 의복의 성적 매력, 유행, 과시성, 신체모습향상을 선택하였다.

##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만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만족을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개념으로서의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혼의 결과사이의 일치 정도로 정의된다. 또 하나는 만족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 대 불만족, 행복 대 불행, 유쾌 대 불쾌의 현상이라는 것으로, 주관적 개념으로서의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로 정의된다(이은섭, 2002).

일반적으로 객관적 측면보다 주관적 측면의 결혼만족도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측면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현숙(2001)은 결혼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불행감, 만족감, 기쁨 등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 조혜선(2003)은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개인이 부부라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선호의 정도라고 하였다. 즉 결혼만족도는 본인의 결혼생활에 대해 주관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강옥례(2003)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측정한 것이며, 결혼생활 전반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해 인지하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충족감의 정도이다.

Burr(1973)는 결혼만족도가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으며 결혼에서 추구될 수 있는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의 측정은 여러 요인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남숙(2009)에 의하면 부부의사소통은 결혼만족에 필수적이며, 부부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부부는 더욱 만족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개인의 만족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만족감은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 및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

박아청, 이경혜(1998)에 의하면 결혼만족도는 청년기 여성에 있어 중요한 심리, 사회적 변수이고, 조성

회, 박소영(2010)은 기혼남녀의 건강한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매우 중요하고,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개념보다 주관적 개념으로서의 결혼만족도가 더 포괄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므로 결혼만족도를 주관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 여성에게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내면적 특성이 반영되는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의복행동

의복행동에는 유행, 과시성, 성적 매력, 신체모습향상이 포함되었다.

이은영(1999)에 의하면 사회적 집합현상인 유행은 소비자들이 혁신적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집단 내, 집단 간으로 확산된다. 문화성향과 의복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한 천문선 외(2006)는 수평적 개인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은 새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먼저 구매하는 소비성향인 유행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개인중심 성향자는 남들보다 새로운 유행스타일의 옷을 먼저 구매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경희, 정성지(2000)의 연구에서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남자 중고등학생들보다 유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유행의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심정은, 고애란(1997)은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박성연 외(2001)의 연구에서도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부희 외(1996)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Behling(1992)은 유행을 초기에 채택하는 사람은 과시적이고 사교적이며 변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천문선 외(2006)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서열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수직성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복의 신분상징성 및 과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안귀덕(1992)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성교제 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자신의 용모와 옷차림이며, 이

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aiser(1996)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로맨틱한 이성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고, 남성들의 경우 자신의 이성친구의 성적 매력을 중요시하였다. 김희창(1998)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여학생은 이성에게 좀 더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의복의 유행행동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유행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명, 고애란(2001)에 의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 느낌 및 변화에 더 민감하여 자신의 신체를 꾸며주는 의복 등을 통해 외모변화행동을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려 한다.

자신의 신체결점을 커버하거나 신체장점을 더욱 강조하려는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복행동인 신체모습향상은 이미지 관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진숙, 김윤희(2006)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과격한 체중조절이나 의복을 통한 외모 관리를 더 많이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경란, 이명희(2002)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외모 지향성 및 건강 지향성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체적 외모를 개선하려는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외모 관리 행동을 조사한 정용희, 김창현(2000)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체적인 외모 관리를 위해 의복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삼호, 강혜원(1991)은 신체에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을 극복하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허영심, 허영심 요인에 의하여 응답자를 세분화한다.

연구문제 2: 결혼만족도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결혼만족도 요인에 의하여 응답자를 세분화한다.

연구문제 3: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에 의하여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부가적 관심: 허영심 요인, 결혼만족도 요인,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된 본 설문지는 4인의 전문가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정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허영심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개인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집착을 뜻하고, 전경숙, 박혜정(2006)의 연구에서 16문항을 발췌, 수정하였다.

##### 2) 결혼만족도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 만족, 즐거움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은영(2009), 이선정(2000)의 연구에서 44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3) 의복행동

성적 매력, 유행, 신체모습향상, 과시성의 4가지가 포함된다.

(1) 성적 매력은 의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나 이성을 의식하고 이들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전경란(2002)의 연구에서 6문항을 발췌하였다.

(2) 유행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구매하거나 최신 유행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뜻하고, 전경란, 이은희(2005)에서 6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 신체모습향상은 의복을 통해 신체의 불만부분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 4문항, 연구자가 작성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4) 과시성은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 5문항, 연구자가 작성한 1문항을 사용하였다.

4) 라이프스타일

의복과 외모에 신경을 쓰는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전에 계획을 세우고 구매 시 물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구매 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이 포함되며, 한성지, 김문숙(2002)에서 8문항을 발췌, 수정하였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수원시 소재 대학 사회문화교육원에 재학 중인 주부 및 서울 강남구의 주부 300명으로 편의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자료는 2010년 4월 초부터 5월 말 사이에 수집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58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4. 통계분석

SPSS 17.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 변인의 하위척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유값 1 이상을 기준으로 Varimax 회전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4 미만인 문항 및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

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은 군집 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들을 비교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K-평균 군집분석을 사용하였고, 각 군집의 평균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검정하는 F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허영심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는 변량분석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결혼만족도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각 종속변수(4가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허영심의 하위차원

허영심이 어떤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누적 변량은 53.46%였다. 요인 1은 ‘나는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 ‘나의 외모를 사람들이 시기한다’, ‘나의 신체는 성적 매력에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외모 자신감’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20.53%였으며,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당황스럽다’, ‘나는 다른

<표 1> 허영심 요인분석

문항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분산 (%)	신뢰도 (Cronbach's α)
외모 자신감	· 나는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	.79	20.53	.82
	· 나의 외모를 사람들이 시기한다.	.74		
	· 나의 신체는 성적 매력에 있다.	.73		
	· 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호감을 준다.	.72		
	· 나는 나의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54		
성취/ 외모관심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68	17.10	.73
	·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당황스럽다.	.66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직업에서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다.	.63		
	· 나는 내 업적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61		
	· 내 또래보다 더 큰 성공을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60		
성취 자신감	·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71	15.84	.69
	· 나는 여자로서 또는 주부로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68		
	· 나의 업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꽤 인정받는다.	.67		
	·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성공하기 바란다.	.64		
	· 나에게서는 직업에서의 성취가 의미가 없다.	.41		
총 변량		53.46		

사람들보다 직업에서의 성공에 더 관심이 많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취/외모 관심'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17.10%였으며, 신뢰도는 .73이었다. 요인 3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여자로서 또는 주부로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다', '나의 업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꽤 인정받는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취 자신감'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15.84%였으며,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경숙, 박혜정(2006)의 연구에서 '외모 자신감' 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동일하며, 주부들은 개인의 성취보다는 외모에 대하여 과장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경숙, 박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허영심의 하위차원이 '외모 자신감', '성취 자신감', '성취 관심', '외모 관심'의 4개로 추출되어 본 연구와 다소 달랐다.

## 2. 허영심의 군집분석

허영심의 요인 차이를 토대로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외모 자신감 집단, 성취/외모 관심 집단, 성취 자신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외모 자신감 집단은 외모 자신감 점수가 제일 높았고 성취 자신감 점수가 낮았다. 성취/외모 관심 집단은 성취/외모 관심에 대한 점수가 높고 외모 자신감 및 성취 자신감 점수가 모두 낮았다. 또한 성취 자신감 집단은 성취 자신감 점수가 높고 성취/외모 관심 및 외모 자신감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미우(2010)의 연구에서 허영심 요인 차이에 대한 집단 구분의 군집분석 결과가 성취/외모 자신감 집단, 적극적 허영 집단, 성취/외모 관심 집단으로 나타난 것과 여자대학생 대상의 서정희(2008) 연구에서 허영성향이 약한 집단, 허영성향이 강한 집단, 평가 중시 집단으로 구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조사대상자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 3.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

결혼만족도가 어떤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밝히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0.4 미만)과 2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누적 변량은 54.50%였다. 요인 1은 '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남편은 내 자유 시간을 자주 빼앗는다', '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남편과의 관계'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20.10%였으며,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 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행복한 생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18.08%였으며, 신뢰도는 .90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불행한 생활'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설명 분산은 16.33%였으며, 신뢰도는 .88이었다. 주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남편과의 관계'로 나타난 것은 부인에 대한 남편의 배려, 부부간의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김미정(2001)이 '대인 간 과정은 결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 4. 결혼만족도의 군집분석

결혼만족도의 요인 차이를 토대로 응답자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결혼생활 만족 집단과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결혼생활 만족 집단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점수가 높고 불행한 생활에 대한 점

<표 2> 허영심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요 인	집 단	성취/외모 관심 (n=68)	외모 자신감 (n=84)	성취 자신감 (n=102)	F 값
외모 자신감		-0.81	0.87	-0.18	99.50**
성취/외모 관심		0.48	0.55	-0.77	83.61**
성취 자신감		-0.65	-0.04	0.47	32.02*

\* $p < .05$ , \*\* $p < .01$

<표 3> 결혼만족도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분산 (%)	신뢰도 (Cronbach's α)
남편과의 관계	· 남편은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78	20.10	0.91
	· 남편은 내 자유 시간을 자주 빼앗는다.	.71		
	· 남편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준다.	.71		
	· 남편은 되도록 나를 편하게 해주려 한다.	.68		
	· 남편은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65		
	· 남편은 내 의사를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주는 편이다.	.62		
	· 나는 남편과 사이가 좋다.	.58		
	· 남편과 나는 매사에 의견이 일치한다.	.58		
	· 나는 남편과 자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55		
	· 남편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다.	.52		
행복한 생활	· 나의 결혼생활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나에게 만족감을 더 많이 준다.	.74	18.08	0.90
	· 나는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71		
	· 나의 결혼생활은 나 자신이 결혼 전에 세웠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68		
	· 나는 확실히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62		
	· 지금까지 나의 결혼생활은 성공적이었다.	.61		
	· 나는 남편에게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	.61		
	· 나의 결혼생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55		
	· 우리 부부의 애정표현은 서로 마음에 든다.	.52		
	· 시간이 갈수록 나의 결혼생활은 더 만족스러워 질 것이다.	.49		
	·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0		
불행한 생활	· 나는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70	16.33	0.88
	· 결혼생활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70		
	·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 어렵다.	.67		
	· 남편은 나를 매우 신경질 나게 한다.	.66		
	· 결혼생활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64		
	· 현재의 결혼생활은 나를 너무 구속한다.	.64		
	· 현재의 결혼생활은 확실히 불행하다.	.62		
	· 나는 결혼생활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쳤다.	.56		
	· 나는 남편과 이혼하게 될까봐 두렵다.	.40		
	총 변량	54.50		

<표 4> 결혼만족도 요인에 의한 군집분석

요인	집단	결혼생활 만족 (n=108)	결혼생활 불만족 (n=138)	F 값
남편과의 관계		0.26	0.20	13.88*
행복한 생활		0.50	-0.39	59.09**
불행한 생활		-0.66	0.52	126.20**

\* $p < .05$ , \*\* $p < .01$

수가 낮았으며,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은 불행한 생활에 대한 점수가 높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남편과의 관계' 요인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5. 허영심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

허영심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성적 매

력, 유행, 신체모습향상, 과시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 후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4가지 의복행동변인 모두  $p < .001$  또는  $p < .01$  수준에서 세분화된 허영심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본인의 외모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유행에 관심이 많고 성적 매력 이 돋보이는 옷, 타인의 눈에 띄는 의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성취 자신감이 높거나 성취 및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의복행

<표 5> 허영심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집단	성취/외모 관심	외모 자신감	성취 자신감	F 값
성적 매력		15.50 a	18.00 b	15.37 a	17.46***
유 행		14.10 a	15.67 b	13.60 a	11.01***
신체모습향상		20.33 b	21.17 b	19.72 a	4.96**
과시성		16.24 a	18.47 b	16.03 a	11.80***

\*\* $p < .01$ , \*\*\* $p < .001$

Duncan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 동일한 알파벳으로 나타내었음.

동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패션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앞서기를 좋아하며 의복이 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다는 전경숙, 박혜정(200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 자신의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의복을 고르려는 신체모습향상에 대한 태도도 높게 나타나 성취 자신감 집단과 유의적으로 차별화되었다. 이것은 외모 지향 정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이옥희(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본인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구태여 의복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6. 결혼만족도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

결혼만족도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성적 매력, 유행, 신체모습향상, 과시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의복의 성적 매력만  $p < .05$  수준에서 결혼생활 만족 집단과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

이를 나타내어 결혼생활 만족 집단의 평균점수가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배우자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옷인지를 고려하여 선택하고 세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것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남편과의 관계로 나타난 것에서 원인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7.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의 성적 매력에 미치는 영향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의복의 성적 매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외모 자신감, 성취/외모 관심 요인이었고,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미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본인이 괜찮은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외모 및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부들은 의복으로 자기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외모

<표 6> 결혼만족도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집단	결혼생활 만족	결혼생활 불만족	t 값
성적 매력		16.76	15.86	2.00*
유 행		14.82	14.08	1.82
신체모습향상		20.19	20.39	-0.49
과시성		17.18	16.61	1.17

\* $p < .05$



<표 7>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성적 매력에 미치는 영향

	b	β	R <sup>2</sup>	t 값
외모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54	0.36	0.37	6.19***
외모 자신감	1.00	0.29		5.15***
성취/외모 관심	0.56	0.16		2.83**

\*\*p<.01, \*\*\*p<.001

를 중요시하고, 외모에 자신이 있으며 또한 성공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적 미의 기준 중의 하나인 섹시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의 유행에 미치는 영향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의복의 유행에 유의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외모 자신감이었고, 구매 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6%였다. 이것으로 본인의 외모에 대하여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의복을 착용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여성들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많으나 물품을 살 때 계획을 세우고 여러 상점을 둘러본 후에 구매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승희(2000)의 연구에서 외모를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집단이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신분상징 지향 및 타인인정 지향의 구매성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 및 과시적 외모 지향형은 의복 구매 시 유행이나 자신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고려하여 계획구매보다는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성지, 김문숙(2002)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의 신체모

습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성취/외모 관심이었고, 행복한 생활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을 착용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화장과 장신구도 고려하며, 본인의 외모나 성취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본인의 신체적 불만이나 단점을 감추려는 의복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모 및 성공에 관심이 있고 살아가는데 있어 외모를 중요시하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으며,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의복을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의 과시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의복의 과시성에 의미 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외모 자신감이었고, 구매 지향형 라이프스타일과 불행한 생활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몸치장이 즐겁고 본인의 외모에 자신이 있으며 충동구매의 경향 및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여성들은 남의 눈에 띄는 과감하거나 독특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표 8>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유행에 미치는 영향

	b	β	R <sup>2</sup>	t 값
외모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49	0.37	0.26	5.75***
외모 자신감	0.58	0.18		3.00**
구매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17	-0.13		-2.25*

\*p<.05, \*\*p<.01, \*\*\*p<.001

<표 9>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신체모습향상에 미치는 영향

	b	β	R <sup>2</sup>	t 값
외모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52	0.39	0.24	6.02***
성취/외모 관심	0.52	0.16		2.65**
행복한 생활	-0.49	-0.15		-2.46**

\*\*p<.01, \*\*\*p<.001

&lt;표 10&gt;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과시성에 미치는 영향

	b	$\beta$	R <sup>2</sup>	t 값
외모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63	0.39	0.35	6.59***
외모 자신감	0.96	0.26		4.50***
구매 지향성 라이프스타일	-0.20	-0.13		-2.35*
불행한 생활	-0.45	-0.12		-2.22*

\* $p < .05$ , \*\*\* $p < .001$ 

의미한다. 이것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소비를 즐기는 소비자 집단은 의복구매 시 과시적이고 미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고 언급한 한성지 외(2002)의 연구결과 및 외모를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패션제품과 심미성을 중요시하며 타인보다 대담한 이미지를 추구하여 자신을 돋보이고자 한다고 언급한 심정희, 연명흠(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의 경우, 부부문제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낮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성미혜 외(2005)의 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감 있게 눈에 띄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원 및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허영심 및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에 따라 응답자를 세분화한 후, 세분화된 집단 간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부가적 관심으로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영심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허영심은 외모 자신감, 성취/외모 관심, 성취 자신감 요인의 3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외모 자신감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허영심 요인들에 의하여 응답자를 세분화한 것은 외모 자신감 집단, 성취/외모 관심 집단, 성취 자신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결혼만족도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 행복한 생활, 불행한 생활 요인의 3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결혼만족도 요인들에 의하여 응답자를 세분화한 것은 결혼생활 만족 집단과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허영심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성적 매력, 유행, 신체모습향상, 과시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의복행동변인 모두 세분화된 허영심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결혼만족도에 의해 세분화된 집단 간에 의복행동(성적 매력, 유행, 신체모습향상, 과시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의복의 성적 매력만 결혼생활 만족 집단과 결혼생활 불만족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허영심, 결혼만족도, 라이프스타일 요인들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외모 자신감과 성취/외모 관심은 의복의 성적 매력에, 외모 지향형 및 구매 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외모 자신감은 의복의 유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외모 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성취/외모 관심, 행복한 생활 요인은 의복의 신체모습향상에, 외모 지향형 및 구매 지향형 라이프스타일, 외모 자신감, 불행한 생활 요인은 의복의 과시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외모 및 성취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허영심은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의복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결혼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는 결혼만족도 측정문항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보완과 수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서울과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옥례. (2003).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구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포항시 지역 맞벌이 남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희, 정성지. (2000). *중고등학생들의 의복동조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3), 401-411.

김남숙. (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정. (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희창. (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 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미우. (2010). *대학생의 허영심 유형에 따른 가격태도와 소매점 선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8(32), 23-38.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박아청, 이경혜. (1998).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16(1), 183-198.

서정희. (2004). *여자 대학생 소비자의 허영성향에 관한 연구-부산, 울산 및 김해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7(3), 125-140.

서정희. (2008). *여자 대학생의 허영유형에 따른 패션명품에 대한 태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81-93.

성미혜, 윤자원, 손혜영. (2005). *중년여성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 *정신간호학회지*, 14(2), 186-194.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심정희, 연명흠. (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패션제품의 이미지 선호도-35-39세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69(20), 143-154.

안귀덕. (1992). *한국의 청소년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현정. (200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숙. (2000). *TV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연예인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 (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131-144.

이선정. (2000).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희. (200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과소비성향 및 의류쇼핑동기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6), 842-852.

이옥희. (2005).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추구태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857-870.

이은섭. (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영. (1999). *패션마케팅*. 서울: 교문사.

이은영. (2009).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성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경란, 이명희.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6), 71-83.

전경란,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19-132.

전경숙, 박혜정. (2006). *Vanity Scale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6), 939-947.

정삼호, 강혜원. (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297-307.

정용희, 김창현. (2000). *남자 대학생의 신체외식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460-476.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2), 205-217.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조성희, 박소영. (201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29), 149-174.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 요인-경제적 자원, 성역할,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회지*, 37(1), 91-115.

천문선, 이수경, 고애란. (2006). *문화성향이 의복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2), 277-300.

한성지, 김문숙. (2002).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동기와 정보원천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2), 116-131.

한성지, 양리나, 김문숙. (2002). *50·6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의복평가기준과 구매장소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0(5), 504-517.

황진숙, 김윤희. (2006). *외모관리행동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심리적 안녕감*. *복식*, 56(3), 143-155.

- Behling, D. U. (1992). Three and half decades of fashion adoption research: What have we learned?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34-41.
- Burr, W. R.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 Netemeyer, R. G., Burton, S., & Lichtenstein, D. R. (1995). Traits aspects of vanity: Measurement and relevance to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 612-626.
- Kaiser, S. B. (1996).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Fairchild Books & Visuals.